

남해군 앵강다숲서 '남해바래길 작은음악회' 개최

등록 2023.08.30 09:16:33

작은 음악회

장소 : 앵강다숲 연꽃테마공원 야외무대 [남해군 이동면 성남로 99]

1회차 [뮤지컬]	2회차 [팝페라]
9월 8일 금요일	10월 13일 금요일
19:00-20:30	19:00-20:30
*남경주, 정승원, 일렉스기보레	*라보체 디 솔레

남파랑길홍보관

앵 강 다 숲

남해군 NAMHAE-GUN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
(055) 863-8778 www.baraerod.or.kr

NEWSIS

[남해=뉴스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오는 9월8일과 10월13일 양일 이동면 소재 앵강다숲에서 2023 남해바래길 작은음악회 '앵강극장'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3.08.30.(사진=남해군 제공)photo@newsis.com

[남해=뉴스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 앵강다숲에서 가을 맞이 2023 남해바래길 작은 음악회가 펼쳐진다.

남해군은 오는 9월8일과 10월13일에 이동면 소재 앵강다숲 연꽃공원 야외무대에서 '2023 남해바래길 작은음악회(이하 작은음악회)'가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남해바래길 탐방안내센터가 주관하는 작은음악회는 2021년 영상음악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3년차를 맞는다. 올해는 '앵강극장'을 모토로 뮤지컬과 팝페라 음악이 앵강다숲을 채울 예정이다.

특히 1회차인 9월8일 공연에는 우리나라 뮤지컬계를 대표하는 배우 남경주씨가 무대에 올라 친숙한 뮤지컬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저녁 7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이날 작은음악회는 남경주씨 외에도 독일 아헨 국립음대를 나와 오페라 가수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 중인 정승원씨도 무대에 선다.

아울러 테너 박재화, 박동운, 바리톤 최판수, 최정수씨로 구성된 팝페라 그룹 '일 빼스카토레(IL PESCATORE)'가 오 솔레 미오 등의 멜로디로 앵강다숲을 뮤지컬 공연장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10월13일 저녁에 열리는 2회차 공연은 팝페라를 테마로 소프라노 김민성, 박수정, 테너 박재화 박성욱으로 구성된 혼성그룹 '라보체 디 솔레(La Voce di Sole)'가 우리에게 친숙한 멜로디로 관람객들을 이끈다. .

작은음악회는 무료로 공연되며, 지정좌석제가 아니므로 선착순 좌석이 운영된다. 단 먼저 도착한 사람이 뒤에 올 일행 좌석을 미리 맡아두는 것은 금지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앵강다숲 작은음악회 당일 주차공간이 부족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카풀을 통해 일행과 같이 오는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남해바래길 홈페이지 (www.baraeroad.or.kr)를 참조하거나 남해바래길탐방안내센터 (055)863-8778로 문의하면 된다.

